지상법석

이 세상이 바로 극락정토”

“불법은 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스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은 중생들 생각속에 들어있어요”

‘나’ 버린 곳에 공덕쌓이고 ‘화합의 세상’ 만들수 있어

끊임없는 집착 아상을 낳고 사이사이에 생사가 걸려

다고 대답을 했지요. 그랬더니 이 백발의 노장이 “부처님께서 영축산 영산회상에서 연꽃을 들어 보이시니 가섭이 그 뜻을 알고 빙그래 웃었다 하더군요. 또 부처님이 지나가는 가섭을 불러 앉아 계시던 탑의 반쪽을 내어 주어 나란히 앉았다고도 하더군요. 입멸하여 슬피우는 가섭에게 부처님은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밀어 보이셨다고 하더군요. 이 세가지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라고 조용히 질문을 던지더군요. 물론 그 뜻을 몰라서 묻는것이 아닌 줄이야 알아 차렸는데 이거참,내가 선방수좌라고 내 입으로 나를 소개한 내가 그 이야기를 생전 처음듣는 것이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 뜻은 고사하고 그 노장의 정체가 궁금해 못견딜 판이었는데 그 노장이 들입다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네가 중이라더니 무슨 중인가. 칠월백중인가 아닌밭중인가 오리무중인가 도대체 무슨 중인가 어서 말해 보게” 노장의 다그침 앞에서 고개를 못들던 일이 어제 같습니다. 잠을 잘때에 보니 눈을 번하게 뜬채 코를 드렁드렁 골던 그 노장은 젊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인데 한참 산 생활을 더 하고 나서야 어느날 문득 그 노장의 물음에 대한 답이 나를 밝혀 주더군요. 그런데 그 노장님은 나를 또한번 놀라게 했어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문상을 갔는데 상주에게 덮은 것을 벗겨보라고 했더니 또 눈을 번히 뜨고 있더군요. “노장님께서 저에게 나고 죽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이라 하더니 어째서 이렇게 죽은 몸을 묍게 됐습니까”라고 시신을 향해 물었더니 아 글쎄 손가락을 까딱 하지뭡니까. 그래서 “손가락이 없으면 무엇으로 대답하려하셨습니까”라고 다시 물었더니 이번엔 팔을 번쩍 들어 보이더군요. 하도 어이없는 얘기라 믿지 못하시겠지요. 믿지 않아도 됩니다만 나이를 이만큼이나 먹도록 절집 생활한 늙은이가 거짓말이야 하겠습니까. 믿는 것도 안 믿는 문제는 항상 여기쯤에서 막혀 버리는 겁니다.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부터 막히니 그 다음을 무엇으로 알아 보겠습니까. 마음을 알아야 모든걸 알 수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내리 외우고 거꾸로 외운다 해도 그것은 마음이 외울때 외우는 것이며 외운바를 마음이 써야 바로 쓰는 것입니다. 마음은 여러분의 본래모습입니다. 몸은 마음을 드러내는 조각된 나무등걸에 불과합니다. 본래 모습인 마음 자리에는 우리가 분별하는 그 무엇도 없어서 그저 여여(如如)할 뿐이니 다툴 것도 시비를 따질 것도 없습니다. 다시 보제 존자의 가르침으로 얘기를 돌려 봅시다.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은 생각이 나고 사그라지는 찰라찰라에 처해 있는 것이니 한 순간도 우리는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하는 일이 그침이 없으니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원효대사의 해골바가지는 다 아는 얘깁니다만 그만큼 마음의 쓰임을 잘 이해 시키는 얘기도 드물지요. 원효대사는 해골바가지로 맛있게 물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 그것이 해골바가지임을 알고 이런 오도송을 읊었습니다. ‘마음이 나타날때 가지가지 법이 나타나고 마음이 멸할때 가지가지 법이 멸한다’ 이 원효의 깨우침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이 여여한 마음의 자리를 확연히 들여다 본자리에서 가능했던 것이니 ‘나’라고 하는 부질없는 집착을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집착은 한 순간도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며 그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아상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생각의 사이사이에 우리의 생사가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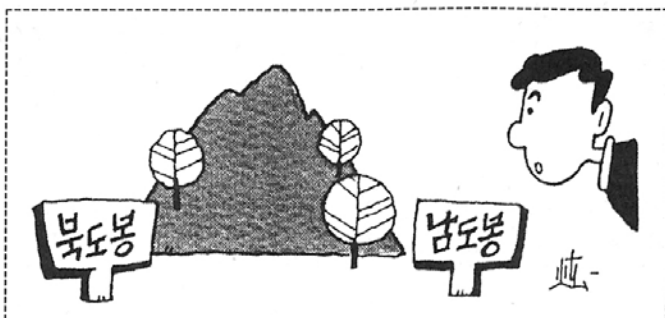
그러한 생사의 갈래에 끼여진 인생일지라도 모름지기 힘을 다해 화두를 제기하라고 했습니다. 화두를 제기하는 것은 나의 근본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나의 근본자리는 마음의 본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마음이요 선이니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입니다. 유한한 시간속에 유한하게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이니 무한하고 절대적인 나의 모습을 찾는 마음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화두를 들고 정진해 화두가 순순히 풀려지면 생각의 일어나고 멸함도 다할것이고 그 다한 곳이 절대고요의 세계인 겁니다. 이미 생사의 고통스런 현상을 떠난 고요의 세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래마음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눈을 통해 사물을 보지만
> 눈을 감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 칠흙같은 어둠이 보이지요
> 그러면 어둠은 무엇으로 봅니까

화두를 제기함에 선방에서 가부좌하고 앉아 ‘이뭣고’ 하는 것만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나의 참모습에 대해 의심을 품고 그것을 풀어보는 것도 화두요 관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부지런히 부르는것도 화두일 것이니 무엇이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숙세를 두고 응어리진 업연의 뿌리들이 술술 무너져 내리고 마침내 알짜배기 내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불법(佛法)은 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중생의 생각속에 들어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아까까지 중생의 생각생각 속에 생사가 있다고 했지만 그 생각생각 속에 불법도 나란히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잘못된 버릇이 쌓이고 쌓여 생사를 짓는 생각만 일으키면 할 수 없는 중생이고 부처의 생각만을 일으키면 곧바로 부처이니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도 따로 있질 않습니다.

생사를 짓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과거숙세의 업들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화두를 들고 용맹정진하고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 수행의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나’를 버리는 것인데 나를 버린 곳에서 중생은 헌신적인 공덕을 쌓을 수 있고 남과 다툼이 없어 화합의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옹스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 아셨을 것입니다.

마음을 잘 쓰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팔만사천 대장경이 모두 마음 잘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으니 마음이 밝고 변함이 없을때 삼계도사(三界導師)요 사생자부(四生慈父)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둘이 아니니 부처의 마음을 내면 그 모습이 부처이고 중생의 마음을 내면 그대로 중생일뿐입니다. 저 구포 앞의 낙동강에 비친 달이 물따라 흐르는지 물이 달빛을 따라 흐르는지 생각해 보십시요. 물은 물로써 흐르지 아니하고 달빛은 달빛인채 그대로 있을뿐이나 바로 나의 의식이 흐르고 있어 강물이 흐르고 달빛이 흐른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61

양 형 진

이사무애

“도봉산 보는 방향따라 형상 다르지만 상주 불변하는 본체는 오직 하나일 뿐”

전자나 빛은 한 쪽에서 보면 파동이고 다른 쪽에서 보면 입자이다. 도봉산을 서울 쪽에서 보면 남도봉이요 의정부 쪽에서 보면 북도봉이다. 큰 물에 바람이 일면 이 파도도 있고 저 파도도 있다.

도봉산을 어느 쪽에서 보느냐의 인연에 따라 수많은 도봉이 나타나며, 바람이 언제 어느 곳에 어떻게 부느냐의 인연에 따라 수많은 파도가 일어난다. 이렇듯 수많은 도봉과 파도가 나타나지만 그 불변하는 본체는 오직 하나 도봉산과 물일 뿐이다.

이 예로서 체와 용의 관계를 비유하여 설명해 보자. 여기서 체란 인연에 따라 나타나는 일체 차별상의 근본이 되는 절대평등의 본체로서 일체 만물의 불변상주하는 본 모양을 가리키며, 용이란 체를 근거로 하여 인연에 따라 일체 차별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위의 예에서 도봉산과 물은 남도봉과 북도봉, 이 파도와 저 파도의 차별이 없이 불변하는 본체이므로 체가 된다. 도봉산과 물이라는 본체가 여러 각도에서 본 다양한 도봉과 여러 곳에서 이는 다양한 파도로 나타나 갖가지 차별상이 생기는 것을 용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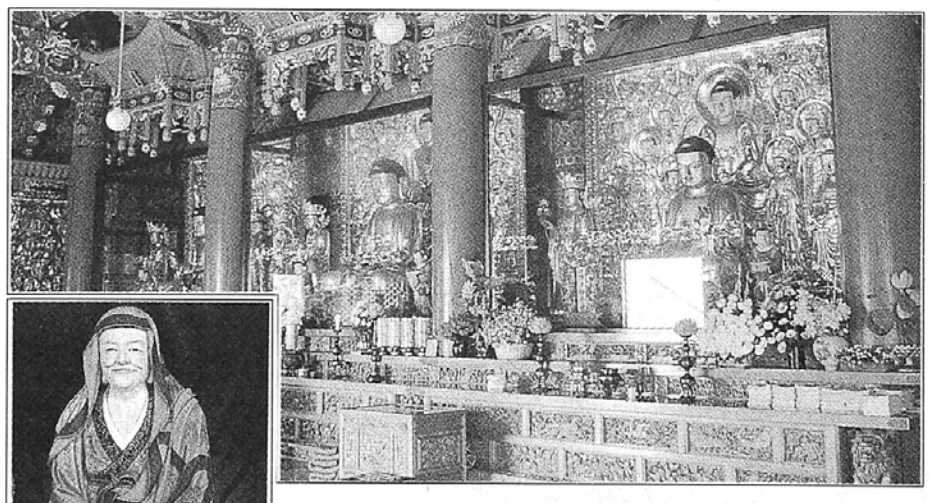
그러나 이는 다만 비유로서만 성립할 뿐 체와 용에 대한 완벽한 예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봉산이나 물도 다른 산이나 다른 물건과의 관계에서 보면 엄연한 차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체와 용에 대한 긍극적인 예는 색즉시공과 공즉시색 즉 진공묘유(眞空妙有)에서 찾을 수 있다. 색즉시공과 공즉시색은 결국 같은 말이지만, 이를 굳이 나누어 본다면 진공과 묘유를 의미하게 된다. 색즉시공이란 색으로 나타나는 온갖 차별상은 결국 무자성이어서 평등 무차별한 공이라는 의미이므로, 색이 숨고 공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체의 면에서 공을 강조하는 진공의 의미이다. 공즉시색이란 진여의 본체인 공이 곧 색이라는 의미이므로, 공이 숨고 색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용의 면에서 색을 강조하는 묘유의 의미이다.

이제 이러한 체용과 관련하여 화엄에서의 사종법계(四種法界)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종법계라 함은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애법계, 사사무애법계를 말한다. 사법계(事法界)란 우주 만유의 현상이 서로 대립하여 차별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남도봉과 북도봉, 이 파도와 저 파도의 차별상이 드러나는 색의 세계이다. 물리학에 비유하면 이는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고 하늘에는 달이 떠있는 현상의 세계이다. 이법계(理法界)란 차별의 만유는 서로 대립하고 있으나 그 모든 것에 일관한 본체는 절대평등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여러 도봉과 여러 파도가 인연에 따라 달리 나타나지만 상주불변하는 하나의 본체인 도봉산과 물의 세계를 가리킨다. 색과 대비하여 본다면 공의 세계이며, 물리학에 비유하면 사과와 달의 현상을 있게 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이제 이사무애법계관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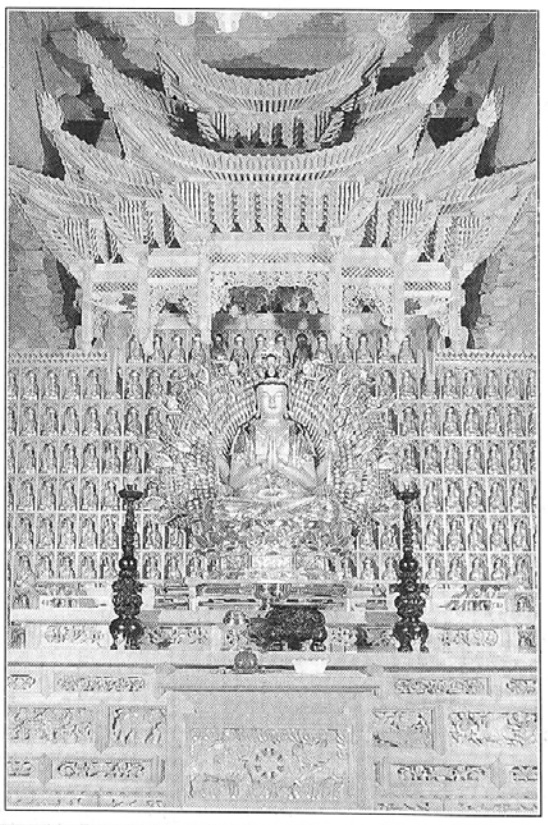
물리학이란 자연 현상의 규칙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그 모양이 훌륭하게 보이는 법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 현상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면 물리 법칙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예로 만유인력의 법칙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도, 그것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등의 무수한 개개의 현상과 떨어져서는 성립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봉이나 물이라는 본체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개개의 도봉이나 개개의 파도라는 차별상을 떠나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파도가 곧 물이요 물이 곧 파도이며, 개개의 도봉이 곧 도봉산이요 도봉산이 곧 개개의 도봉이 된다. 이는 일체 차별상의 사법계가 절대 평등의 이법계와 상즉상입하여 원융무애함을 나타낸다. 이와 사를 다시 체와 용으로 보고 진공과 묘유를 그 예로 든다면, 이사무애법계관이란 체가 즉 용이고 용이 즉 체이니 진공이 즉 묘유이고 묘유가 즉 진공이어서 진공과 묘유가 원융무애하고 색즉시공이며 공즉시색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단공(斷空)이 아니고 진공이다.)

그리하여 색즉시공이라 하면 색이 숨고 공이 드러나 공뿐인듯하고 공즉시색이라 하면 공이 숨고 색이 드러나 색뿐인 듯 하지만, 색과 공은 상즉하고 상입하여 서로 방해하지 않고 오직 원융무애할 뿐이다. 〈고려대 교수 · 물리학과〉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